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현대불교

hyunbulnews.com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26일) · 주간

제 1065호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사찰·본사·중앙 이어나갈 교구신도회 전국구성 '눈앞'

조계종 24개 교구 중 3곳만 남아... 연내 구성 추진

조계종 신도네트워크 전국화의 핵심사업인 교구신도회 창립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희망드림 대장정'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진행해 온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연내 전국에서 교구신도회를 구축하고 향후 SNS를 통한 운영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최근 제3교구(교구장 우송, 신흥사 주지)가 10월 13일 속초 신흥사에서 교구신도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쌍계사에서 제13교구신도회 창립이 진행된데 이어 것으로 교구신도회가 창립되지 않은 제6교구 마곡사와 제12교구 해인사 또한 연내 신도회가 구성된다.

교구신도회는 지역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교구본사 산하 말사들을 아우르는 신도조직이다. 본사뿐만 아니라 말사 신도조직을 총괄하는 대의기구로 지역현안을 공동의제로 삼아 활동한다.

그동안 조계종은 중앙신도회와 본말사 신도회는 있었지만 중간 연결고리인 교구신도회가 없어 지역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응집력이 떨어진다. 이에 지역을 받아 왔다. 이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014년부터 '희망드림대장정' 사업으로 교구신도회 중심으로 신도조직을 구성해

왔다. 장성원 중앙신도회 행정지원팀장은 "교구신도회 창립 이후 중앙단위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공익모금운동 행복바라미 사업의 경우 교구신도회 차원으로 활동을 전개한 3년차 사업이 1,2년차에 비해 60% 이상 모금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중신회' 드림대장정 사업 추진 1년간 조직 사업 마무리 단계 바라미 모금액 60% 증가 등 전국 신도 사업 활성화 기대'

그렇다면 교구신도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교구신도회는 사찰신도회를 근간으로 하기에 사찰신도회 활성화가 결국 교구신도회 활성화로 직결된다.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찰신도회가 교구신도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한다. 스님들이 신도조직이 사찰과 불교발전의 동반자라는데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승가에서는 신도들이 응집하면 거부감마저 있을 수 있다. 적극적인 재가자의 경우에는 사찰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도의 묘를 통해 출제가의 조직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신도회, 교구신도회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먼저 SNS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구신도회의 활동을 위한 의제설정부터 활동지원 등을 SNS를 통해 진행된다.

이어 중앙신도회는 11월 16~22일 각 교구본사에서 권역별간담회를 열고 교구신도회 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향설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11월 27~29일에는 중국 청도 일대에서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열고 친목도 모모한다.

이기홍 중앙신도회 회장은 "전국 교구본사 순회를 통해 개신사찰을 청취해 향후 교구신도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지원시스템을 마련해갈 계획"이라며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불교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베트남 불자와 함께 한 한가위

민족 명절인 추석, 이역만리 타향에서 온 외국인들은 가족을 그리며 쓸쓸히 명절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연휴기간동안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법석을 펼쳤다. 삼광사는 9월 26~29일 경내 지관전에서 '다함께 하나 되는 한가위 베트남법회'를 봉행했다. '마음 넓히기'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베트남불교 부위원장 티광누언 스님, 선교위원 티타엔투안 스님, 성의불교 총무이사 버리아 봉떠우 스님을 비롯한 베트남스님과 베트남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 후 마당에서는 베트남 스님들의 탁발행렬이 이어졌으며, 재가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베트남불자들이 출가를 체험하는 식복의식과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사진제공=부산 천태종 삼광사

“만공 스님 항일정신 평가하는 공개토론 열자”

경허만공선양회, 10월 1일 국가보훈처에 공문 보내

“일제의 골통을 일할로 깨부수고 불언지언(言之言)으로 창씨개명을 끝내 거부한 만공선사의 고차원적인 항일독립운동 행적은 분명한 형적(形迹)으로 오늘에 재조명해 공적을 널리 선양해야 합니다.”

만공 스님(자신)의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경허만공선양회(회장 웅산)가 10월 1일 국가보훈처에 학술자료 송부와 함께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웅산 스님은 10월 1일 “지난 9월 22일 학술대회 후 국가보훈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 업적이 투옥 및 복역 기록이 없어 평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장투쟁뿐 아니라 간디보다 앞서 비폭력 투쟁을 실천했던 만공의 독립운동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양회 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조선총독 앞에서의 항변 △만해 스님에게 독립운동자금 전달 △의왕



성 수호위한 선학원 설립 주도 등을 보훈처에 주장했다.

웅산 스님은 공문발송에 대해 보훈처에 “사상적 행위에 대한 내용도 독립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항일정신 평가의 검증에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서훈 심사는 현재 1차 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10월 말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서훈은 11월 17일 순국선열의날 발표된다. 경허만공선양회는 5월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이탈리아에 한국사찰음식 매력 전한다

문화사업단, 10월 14~18일 밀라노엑스포 참가

인류의 식량 문제를 주제로 5년마다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알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15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해 대표적인 한국 전통 음식문화이자 자연친화적인 사찰음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한다.

이번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는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관 부스를 설치해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를 주제로 한국전통음식을 소개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관 행사의 일부로 참가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자연과 시간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 '사찰음식' △자연과의 조화로운 식사가 건강의 비결 △소식, 채식, 나눔과 배려의 식습관 등 사찰음식의 장점을 의

국인들에게 부각시킬 예정이다.

사찰음식 홍보는 △전시(음식, 식재료, 닥종이 인형, 상시운영) △강연(사찰음식 소개 및 전통 장문화 소개) 및 시연(30~50여명 대상, 1일 2회) △템플스테이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연꽃등 만들기, 인경 탁본, 단청그리기) △포토존 운영(즉석사진 촬영 및 사찰음식 액자제공) △영상 상영(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소개) △만찬(이탈리아 미식과 대학과 교수 및 학생 80여명) 등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외반출 문화재 감정제도 시행된다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시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를 10월 1일부터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개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에 문

화재감정관실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 바로 직전에 여행객들이 해당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해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전예약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 누리집 첫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문화재확인서'를 받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국외반출 불가능 문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다. 적발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출된 사진만으로 문화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국 당일 문화재 감정관실을 방문해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성민 기자

OK~ YES~

만원으로 채우는 행복여행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관광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체험기와 사진을 공유하면
선물이 팡!팡!
기간 : 10/19 ~ 11/13 발표 : 11/1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0/19(월)부터 ~ 11/1(일)까지 14일간 즐기는 템플스테이 가을 관광주간
예약은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fall.templestay.com)에서 가능
대 상 | 선착순 10,000명 (외국인도 가능) **참가비** | 1박2일 10,000원 / 당일 5,000원

www.templestay.com

blog.templestay.com

facebook.com/templestay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